

커리어디자인 2주차 과제

대학생 시기에 하고 싶은 일 세가지

201911019 최현민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컴퓨터과학과 최현민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프로그래머를 꿈꾸고 있는 컴퓨터과학과 최현민입니다. 저에게는 대학생활이 1년밖에 남지 않아서 마지막 대학생활인 올해를 अच्छ고 멋있게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 꼭 하고 싶은 일이 3가지 있습니다.

첫번째로 하고 싶은 일은 여름방학 네이버 체험형 인턴 참여입니다. 저는 실력 있는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나중에 네이버와 카카오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에 입사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3년동안 프로그래밍을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 동아리 활동과 팀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저는 이번 겨울방학때는 체험형 인턴으로 빅데이터 전문기업 몽타에서 2달동안 열심히 즐겁게 일을 하며 프로그래밍이 제 적성에 딱 맞다는 것을 깨닫고 이번 여름방학에는 더 큰 대기업에서 인턴으로 일을 하며 여러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번 학기에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하고 싶은 일은 대외공모전 입상입니다. 저는 컴퓨터과학과에 들어와서 우리 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학교 학생들과 함께 대외공모전에 참여하며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서 프로그래밍 연합 동아리에 참여했지만 2년전부터 코로나로 인해 여러 학생이 모여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내 프로그래밍 동아리와 교내 공모전 입상으로 만족해야 했지만 올해는 워드 코로나와 연합 프로그래밍 동아리 루키 참여로 더 다양한 활동 참여가 가능해져서 이번 학기에는 우리 학교를 비롯해서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대외공모전에 참가하고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더 폭 넓은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은 1년동안 좋은 습관 만들기 입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습관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과 이틀에 하루는 꼭 운동하는 습관입니다. 저는 2년동안 코로나 시국에 학교를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게을러지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게 됐는데 최근 겨울방학때 2달 인턴생활을 하며 자연스럽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부지

런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과 다르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니까 본인의 시간이 더 많이 느껴지고 밤보다 아침의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는 걸 깨닫고 2달동안의 생활이 만족스러워서 앞으로도 이 습관을 계속 이어나 갈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 시국으로 전보다 외부 활동이 적어지며 체력이 많이 부족해진 것을 깨닫고 체력을 기르고 몸을 건강히 하기 위해 2달전부터 이틀에 한번씩 헬스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